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www.pac.or.kr



2011. January

Special News
2011년 위원회 신년사

CONTENTS

- 03 이달의 주요뉴스
위원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 노력 당부
- 04 인터뷰
“저작권이 존중받는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
- 06 위원단상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 07 직원마당
홍보팀에서의 3년
- 08 상담후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 09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윤종신 ‘너에게 간다’
- 10 이런애기 저런애기
2011년 신묘(辛卯)년의 의미
- 11 기고 - 박기쁨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언론과 언론재판 1
- 12 위원동정
- 13 사건처리현황
- 14 위원회 소식



발행인 권성 편집인 김용주 발행일 2011년 1월 25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397-3114, 3000 FAX 397-3069 홈페이지 www.pac.or.kr

편집 (주)노마드월드와이드 출력 삼진CNP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 2011년 신년사

위원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 노력 당부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일 시무식을 열고 2011년 업무를 시작했다. 권성 위원장은 시무식에서 “올해는 중재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그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결과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자세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새로운 30년도 커다란 보람과 영광이 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금년에 새롭게 도입된 전자조정중재시스템(언론중재 Eye-Net)이 차질 없이 가동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이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0년간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언론중재제도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도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위원회가 축적하고 있는 사례를 선별해 번역해서 해외 인사들에게 제공한다면 우리 제도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검소하고 내실 있게 치를 것을 주문하고, 위원회가 앞으로도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직원들은 비록 의견이 다를지라도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를 겸손하게 생각하며, 품격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이 존중받는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

이보경 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년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통합으로 탄생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문화발전의 원동력이자
문화산업을 꽃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통합 저작권위원회의 초대 수장인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해 창작자들이 더 훌륭한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아
저작물의 가치가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의 조정·알선 등 ADR 제도의 운영은 물론, 저작권법 및 관련제도 연구와 교육·홍보를 통한 저작권 의식의 선진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의 활성화, 국제교류 및 저작권 기술 연구개발 등 저작권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는지요?

우선 충분한 상담 후에 신청서 접수와 출석 요구, 사건에 대한 조사와 기일진행과정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조정부와 당사자가 충분히 대화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지방 소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조정신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정부가 직접 분쟁 당사자의 거주지로 찾아가는 지방순회조정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순회조정부의 경우 지난해 시범운영한 결과 신청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저작권의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웹하드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불법저작물의 유통과 이로 인한 권리침해는 저작권 분야의 당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과 불법저작물 삭제 등 시정권고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정보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며, 좀 더 효과적인 ADR 제도의 운영을 위해 중재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한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해외진출 콘텐츠사업자에게 전문 법률컨설팅과 구제조치 등을 지원하고 있고, 해당국가의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관련당국의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세미나·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현황 및 저작권 침해실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련정보를 업계에 제공함으로써 해외 진출 국내업체들이 실효적인 침해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ADR기구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가장 차별화된 점을 꼽는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요?

위원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저작권 분야를 20년 이상 다루어 왔습니다. 저작권이 포섭하는 분야는 문화예술·문화산업·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컴퓨터프로그램 등 대단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분쟁내용이 다양하며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랜 기간 동안 ADR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특성 파악과 함께, 충분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합의 7부와 단독 4부로 구성된 총 11개에 이르는 조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려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분쟁당사자의 폭넓은 공감대와 권위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중재위원회가 ADR기본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ADR제도는 사회가 전문화, 세분화되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봅니다.

저작권 분야 또한 다른 어떤 분야 못지않게 그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도 산하에 중재센터를 두고 있고, 작년 아시아 지역의 중재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후 우리나라에도 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ADR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입법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다양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8년에 舊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2009년 기관통합과 함께 한국저작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저작권 문화 발전을 위해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특히 무난히 양 기관을 통합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출범한 뒤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높아진 것과, 우리나라가 2009년 미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이를 유지하는데 위원회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저작권 의식제고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선진적인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입니다.

인터뷰/남승균, 사진/김민정(이상 홍보팀)

이보경 위원장

초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본부장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문화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사무국장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장 현 우 위원
(서울제1중재부 / 변호사)

Scene 1. 광화문에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중재부 심리를 위해 광화문에 온다. 커피를 마시며 중재부장과 위원들과 함께 사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시 한 번 기록을 검토하며 대화를 나눈다. 곧 이어 심리실에서 사건의 심리가 시작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열띤 주장과 중재부장과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합의가 시작된다. 익숙한 풍경에서 꼭 빠지지 않는 모습이 있다.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자신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손을 들면서 말할 것이 있다고 한다.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미 충분히 파악했다고 판단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의 얼굴에는 ‘제 말 좀 들어 주세요요’라는 글이 씌어져 있다. 심리 시간이 지나고 판단을 한 후 심리실을 나와 대기실로 간다.

Scene 2. 서초동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는 변론을 위하여 서초동으로 간다.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건에 대한 검토와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메모를 하고 당사자와 통화하거나 협의를 한다. 곧 이어 법정에서 열띤 공방이 이어지고 재판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진다. 나와 당사자들은 법정 자리에서, 혹은 옆에서 손을 들면서 자신이 이야기 할 것이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한다. 변론이 끝나면 법정을 나와 사무실로 간다. 사무실로 내려와 숨을 고르며 사건 진행에 대한 정리를 한다. 다음 사건 진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거나 메모한다.

광화문과 서초동을 오가는 매주 금요일은 바쁘지만 소중한 시간이다. 오전에는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오후에는 판단을 받는 입장에서 아쉬움과 긴장감을 느끼며 배우고 느끼고 있다. 양쪽의 입장을 오가며 ‘소통’에 대하여 다시 느끼게 된다. 판단을 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졌을 때 판단 결과 자체에 크게 개의치 않는 당사자들을 보면서 소통이라는 에너지에 새삼 놀라게 된다.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서 가상 환자와 대화를 평가한다고 하여 참관하였다. 충격이었다. 환자와 대화를 통하여 병명을 잘 맞추는 지가 아니라, 어떻게 대화를 풀어나가고 이들의 주장을 잘 듣고 안심시키는 지에 대한 평가가 더 높다고 한다. 결국 ‘소통’의 문제이다. 더 나아간다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오늘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초동으로 간다. 금요일에는 위원회 심리를 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간다. 입장은 다르지만 광화문에서 많이 듣는, 서초동에서 많이 하고픈 공통된 말이 있다.

“제 말 좀 들어 주세요.”

홍보팀에서의 3년



여운규 (교육팀 차장)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사이드가 있었다. 나는 3년간 정들었던 홍보팀을 떠나 다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다. 지금까지 홍보 업무를 맡았던 햇수를 다 더해보니 그럭저럭 8년. 입사한 이래 절반 이상의 세월을 홍보와 함께 한 셈이었다. 원래 홍보에 관심이 있었고, 적성에도 맞는 편이긴 했지만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도 있었고, 어쩔 수 없는 한계에 좌절한 적도 많았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위원회의 존재를 알리고,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언론피해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중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여러 모로 내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다.

지난 3년간의 홍보팀 시절 중에서 단연 기억에 남는 일은 2009년 TV 캠페인을 제작한 일이었다. TV 광고 제작이야 말로 홍보 업무의 꽃이라고 할 만 하다. 많은 예산이 들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많다. 때는 바야흐로 개정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는 해였다. 원래 계획은 개정법 시행 전에 캠페인을 완성해서 포털과 인터넷 뉴스 서비스도 중재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집중 홍보하는 것이었지만, 항상 외부 환경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법. 추경 예산이 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이미 시행일자가 한참 지나버린 것이다. “8월 7일,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됩니다!” 라는 컨셉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고민 끝에 개정법 시행은 자막이나 한 컷의 화면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위원회 기존 업무를 다시 한 번 알리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정보 나열식은

시청자에게 민폐만 끼치는 일일뿐. 메시지를 담아낼 스토리 라인이 필요했다. 제작사가 제시한 컨셉은 ‘소중한 사람’. 언론 중재위원회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준 덕에 소중한 친구와 연인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촬영 당일, 광화문 네거리 보도를 막고 살수차가 비를 뿌리며 진행된 촬영 현장에서 나는 소년처럼 설레었고, 그렇게 제작된 40초짜리 캠페인이 방송을 타던 날, 그간의 모든 고생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여러 사정상 지상파 방송 대신 프레스센터 엘리베이터 한 칸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캠페인이지만, 아직도 그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막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을 받곤 한다.

그러던 중 소식지가 홍보팀으로 왔다. 사외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던 소식지는 여러 모로 담당자에게는 도전이었다. 기존 소식지는 우리 내부에서 돌려 보는 용도로는 적당했지만, 외부에 나가 우리 위원회의 얼굴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편집도 엉성했고, 일반 국민들의 시선을 끌만한 읽을거리도 부족했다. 거기다가 갑자기 대폭 늘어난 발행부수는 밤잠을 설치기에 적합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물론 돈을 많이 들이면 예쁘고 재미있는 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알다시피 예산은 항상 부족했다. 어쨌든 해 볼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입찰을 통해 사보제작 전문 업체를 선정했다. 업체가 제시한 안에 따라 표지를 씌우고, 편집 디자인을 새롭게 했다. 부족한 대로 최대한 외부 필자를 섭외해

서 기고를 받고, 영화평, 연재만화를 새로 넣어서 콘텐츠를 보강했다. 그런대로 틀은 갖춰진 셈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다달이 ‘짜 넣기’의 연속이었다. 그리 두껍지도 않은 16면짜리 소식지지만, 가끔 그 웅한 빈 칸이 정말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 때 마다 팀장님을 비롯한 회사 동료들의 도움을 받거나 변변찮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그 광활한 빈 칸을 메워 나갔다. 그 와중에도 새로 시작한 트위터를 통한 원고청탁 몇 건이 성공했을 때의 쾌감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평소 일면식도 없는 기자, 언론사 트위터 담당자, 청와대 비서관 등이 트위터를 통한 원고청탁에 흔쾌히 응해줬다.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더 이상은 짜 낼 것이 없다는 절망감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인사발령이 나를 건져냈다. 홍보팀 3년, 그 중 소식지 담당으로 1년 9개월이었다. 모든 일이 그렇듯, 막상 벗어나고 나니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온다. 그러나 한 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든든한 후임이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들어내고, 더 새로운 기법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해 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최근 2년 사이 홍보비가 너무 많이 감축되었다는 점이다. 비예산 홍보도 중요하지만, 결국 예산이 없으면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국민들과 함께 살아 숨쉬게 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 율 화 (접수상담팀 팀장)

다부진 덩치에 매서운 눈빛, 공들여 다듬었음이 분명한 “깡두기” 헤어스타일로 그분의 신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한때 한국영화의 단골 소재였던 직업, 어두운 밤길에 만나면 재빨리 눈을 피해야 하는 바로 그분이었다. 상담실로 모시고 들어가면서, 과연 이 난관을 어찌 헤쳐 나가야 할지 근심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사연 역시 내가 짐작한 대로였다. 마약밀매 및 폭력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려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래서 당시 자신의 유죄를 확정적으로 보도했던 기사에 대해 바로잡고 싶어 하셨다.

당연히 추후보도를 해드려야 하는 사안이나, 안타깝게도 조정신청기간이 도과되어 있었다. 추후보도 신청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그 분이 무죄판결문을 받은 시점은 작년 6월이었던 것. 이렇게 말씀드리자, 아침 일찍 진도에서 버스를 타

고 오셨다는 그 분은 빠른 전라도 사투리로 화를 내기 시작하셨다.

“어이, 아가씨. 그란게 어딴데요. 법이 그란 걸 내가 어떻게 안다요. 나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는데, 그란다고 틀린 보도를 옳게 못 고친다는 거이, 그게 법이다요?”

물론 아줌마보다는 덜하겠지만 아가씨 운운에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씀드렸다. 안타까운 사연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법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해 절차가 개시된다고. 만일 3개월 이내에만 오셨더라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을 거라고. 어느덧 그분의 눈빛이 부드러워지더니 속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다. “나도 인터넷에서 검색만 안되면 이렇게까지 안하지라. 오죽하면 진도서 여까지 한걸음에 달려왔겠소. 자식 놈이 부끄럽다고 학교를 안갈라 해서...”

순간 두렵고 불쾌하던 기분은 저 멀리 달아나고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니 아파온

다. 이름 석 자만 입력하면 사생활이 드러나는 요즘 세상에, 분명 무죄인데도 중죄인으로 몰아간 보도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더군다나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봐야 하는 부모 심정이 어떨까 말이다.

각 언론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해서 추후보도를 요청하거나,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더니, 한결 밝아진 얼굴로. 상담센터를 나서면서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하신다. “아까는 참말로 미안했소, 아가씨...” 아가씨라는 단어만 빼주셨더라면 한결 좋았겠지만, 그렇게까지 고마워하고 미안해하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외양만 보고 선입견을 갖는 잘못은 오히려 내가 저질렀는데 말이다. 멀리 진도에서 찾아와, 내게 단시간에 수차례의 감정변화를 선사하신 그 분. 부디 하루 바빠 오명을 벗으시길 기원한다.

CARTOON





윤종신 '너에게 간다'

독일의 비평가 발터 벤야민은 「이야기꾼, Erzähler」이라는 글에서 소설이나 정보와 대비되는 이야기의 특징을 말한다. 벤야민에 의하면 이야기는 세대에서 세대로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경험이고 통찰이다. 이야기는 슬그머니 건네는 제안과도 같아서 강한 구속력 같은 것은 가지지 않는다. 게다가 결말이 없이 열려진 채로 전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데?”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이야기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불친절함(?)이 오히려 이야기의 풍부함과 깊이를 보장해주는 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작동시키게 하기 때문이다. 벤야민은 이렇게 말한다. “설명을 붙이지 않고 얘기를 그대로 다시 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야기의 예술은 이미 반쯤이나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달렸거나 구속력을 가진 정서를 전해주는 음악은 압도적인 감상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듣는 사람의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하진 못한다. 사운드에 있어서나 가사에 있어서 열려진 노래, 음악이 끝나고 듣는 사람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음악이야말로 좋은 음악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윤종신이 2005년 발표한 10집 「Behind Smile」의 타이틀 곡 〈너에게 간다〉는 바로 이런 ‘이야기’이다.



‘슈퍼스타 K2’의 간간한 심사위원이었던 윤종신은 1990년에 ‘공일오비’라는 그룹의 객원 싱어로 데뷔했다. 윤종신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기 높은 싱어송라이터로 자리잡았다. 윤종신의 히트곡은 이별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치 않는 이별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세련된 멜로디에 얹어 다루는데 능숙했다. 가사에 표현된 어쩔 줄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마음 탓인지 그의 노래는 노래 이후에 이어질 장면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충분했던 것이다.

〈너에게 간다〉도 그렇다. 사운드를 보자면 이 곡은 2000년대에 재래한 1990년대의 윤종신처럼 보인다. 멜로디의 구성과 진행은 미국의 재즈록 그룹 시카고(Chicago)를 레퍼런스로 활용한 것처럼

들린다. 공간감은 요즘 노래들처럼 평탄하지 않고, 1980~90년대 팝이나 가요에서 접할 수 있는 홀에서의 울림이 재현되어 있다. 그러나 사운드는 다분히 요즘 음악의 거친 결을 가지고 있고, 편곡에 있어서도 일렉트로니카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단순히 과거 스타일의 재현이 되지 않도록, 익숙하지만 새롭게, 새롭지만 익숙하게 들리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노래가 이야기로서의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가사 덕분이다. 주인공은 옛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며칠을 기다려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의 문 앞에 섰다.

음악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길’을 내달려, 옛 연인과 만나기로 한 약속장소에 점점 다가서면서 벽차오르는 감정을 담아내고 있다(물론 마냥 기쁘다기 보다는 불안과 흥분이 공존하는데, 음악 전체를 지배하는 불안한 정조의 비트가 이를 대변한다). 압권인 것은 이 노래가 약속장소의 문을 여는 장면에서 멈추어 선다는 것이다. “단 한번 그냥 무심한 인사였어도 좋아 / 수화기 너의 목소리 그 하나 만으로도 / 너에게 간다 / 다신 없을 것 같았던 길 / 문을 열면 네가 보일까 / 흐르는 땀 숨 고른 뒤 살며시 문을 밀어본다.” 이후 음악은 점차 잦아들지만 열려진 결말 덕분에 듣는 사람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가 풀어내게 된다. 문을 열면, 그 다음은 어떤 장면이 눈에 보일까?

2011년 신묘(辛卯)년의 의미

이 수 종 (조사팀 차장)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간이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기원전에서 출발한 역사의 시간은 항상 앞으로만 흘러온 것이 사실이다. 즉 2011년은 2010년의 앞으로의 진행을 의미하지 거꾸로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항상 진행하는 삶을 살아왔지 뒤로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본 적은 없다. 바로 이러한 분명한 사실 때문에 역사는 항상 발전한다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역사는 항상 끊임없는 진행으로만 이뤄온 것일까? 아니면 혹시 어떤 반복을 거듭해 온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낮과 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자전과 공전에 의한 하루와 계절의 순환을 반복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또한 역사의 순환이라는 명제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1년 신묘(辛卯)년의 의미는 이러한 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신묘(辛卯)년은 십간 십이지*의 조합으로 구성된 육십갑자의 반복과 순환 가운데 28번째를 차지하는 기운의 조합이다. 이러한 신묘(辛卯)를 나누어 살펴

보면, 우선 10개의 천간(天干) 가운데 신(辛)은 음금(陰金)기운에 해당한다. 즉 금(金)이기는 하되, 양금인 경금(庚金)과 비교되는 기운인 신금(辛金)은 주옥이나 보석, 도검, 날카롭게 제련된 금을 의미하며, 그 성정은 유하고 연약하며, 청유한 성질이 있으므로 수기(水氣)를 반긴다. 또한 신금은 병화(丙火)와 합을 이루기도 하며, 세금(細金)인 관계로 흙에 매몰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한편, 다른 한 글자인 신묘(辛卯)년의 묘(卯)는 12지지(地支) 가운데 토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성분은 천간의 을목(乙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쉽게 이야기 하면 초목, 꽃, 넝쿨 등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묘목(卯木)은 봄을 관장하는 기운으로서 계절로는 음력 2월을 의미하고, 방위로는 정동방(正東方)을 의미한다. 물론 묘가 토끼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상을 빗대어 재주가 많고 다산의 동물이라고 하면서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이 이와 유사한 성정을 지니게 된다고 보는 이도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식적인 판단이다. 음양오행에 따라 순수한 봄의 기운을 관장하는 음목(陰木)의 기운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와 같이 신금(辛金)과 묘목(卯木)의 상반된 기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신묘(辛卯)년은 당연히 그 기운의 형상이 화합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충돌하는 모습이며, 기운의 변화가 상반기와 하반기를 중심으로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예견한다. 왜냐하면 신금과 묘목은 순수한 형태의 금기운과 목기운이 충돌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즉 음양오행의 생극제화(生克制化) 원리에 의하면 금극목(金克木)에 해당하여, 금기운이 목기운을 내려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금극목의 형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水)기운이 사이에서 이를 해소해 주면 될 것이지만, 일단은 충돌과 대결, 분쟁과 파국을 피할 수 없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그 변화가 극심하여 상반기에 득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실을 면하기 어렵고, 상반기에 노고가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본다.

*각주) 십간 십이지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중국 고대의 성군 황제께서 당시의 혼란했던 세상을 평정하고 나서 하늘에 제사 기원을 한 일이 있는데 이때 황제가 하늘로부터 십간과 십이지의 영시를 받았다고 하고, 이를 은왕조 시대에 십진법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달의 책

페이스북 이펙트

데이비드 커크패트릭 지음 | 에이콘출판 | 524페이지 | 값 17,900원

최근 페이스북 성공의 비밀과 비전을 다룬 '페이스북 이펙트'가 출간돼 화제다. 전 세계 가입자가 이미 5억명을 넘어섰고 하루에도 수천, 수만명이 페이스북 대열에 합류하면서, 기업 가치도 현재 337억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을 만큼 화제다. 저자는 수 년 간 '포춘(Fortune)' 지의 인터넷과 테크놀로지 담당 수석에디터로 일했다. 포춘에서 그는 애플, IBM,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썬마이크로시스템즈, 그 외 다수의 많은 기업과 기술들에 대해 커브스토리를 실었다. 그 책에서 그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차이를 한 마디로 정리해주고 있다. "구글에 중요한 것이 데이터라면, 페이스북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알려지다시피 페이스북은 하버드대학에서부터 시작됐다. 다른 학생들의 수강 신청 상황을 알아보던 Course Match 같은 프로그램이 페이스북의 밑거름이 됐다. 이 책은 마크 주커버그를 비롯한 페이스북 창업자들의 이상과 꿈 그리고 창업 이후 지금까지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소셜 라이프를 바꾸고 마케팅, 정치, 비즈니스에까지 깊숙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페이스북의 성장세를 저자는 '페이스북 이펙트'라 칭한다. 페이스북이 만들어갈 새로운 사회, 조직에 대한 저자의 견해와 프라이버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외부의 우려, 극복 방안 등도 함께 담아내고 있다.



언론과 언론재판 1



박기쁨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언론관련사건을 맡게 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전담재판부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언론사건을 접할 수 있었다. 단순히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던 사건들이 실제로 재판부에 배정되어 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그와 같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처음 언론을 통해 가졌던 평면적인 사실 인식과는 달리, 그 사건 안에 상당히 다양하고 입체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언론기관의 보도 취지나 기사의 문구, 언조 등에 따라 같은 내용도 상당히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언론사건을 다루면서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내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하여도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언론의 순기능과 역기능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원에 정보보도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여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번 훼손된 명예

나 신용은 그 이후 정정보도가 나가거나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언론의 파급력과 전파력을 고려하면 그 문제는 보다 심각해진다.

실제로 한번 기사가 보도된 이후 정정보도된 기사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요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된 경우도 있었고, 기업의 경우 매출이 급감하여 심지어 폐업에까지 이르기기도 하였다.

물론 고발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하자 있는 제품이나 사이버 종교, 피라미드 기업, 범죄단체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잘못된 정보 또는 편파적인 보도가 본의 아니게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현대사회와 언론의 앞으로의 방향

- 익명처리 및 자체적인 검증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 언론매체의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는 하나,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위와 같은 언론매체의 보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신문이나 공중파 방송은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의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보도에서 익명화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익명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편집 등의 실수로 인하여 신상이 그대로 공개되어 이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이 종종 눈에 띈다. 뿐만 아니라 사실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국내외 타 언론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보도하거나 일방의 보도자료만을 토대로 하는 기사로 인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지 못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 역시 상당수 있다.

따라서 방송이나 신문 등의 언론기관은 그 보도내용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기사를 생산·보도하기에 앞서 직접 그 진실여부를 확인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익명처리 등에 있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보도해야 하며, 클릭수나 판매부수, 시청률 등을 의식하여 자극적인 제목이나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의 보도 역시 자제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COMMISSIONER



주먹밥 만들기 봉사활동

권성 위원장은 지난 8일 언론중재위원회 직원들과 함께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함께 살아요! 고통을 나눠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최한 나눔봉사에 참가하여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주먹밥과 떡 등을 나누어 주는 봉사활동을 벌였다.



2011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 참석

박홍래 부장(강원중재부, 춘천지법 부장판사)은 12월 16일 춘천 베어스타운관광호텔에서 열린 2011년도 민사·가사 조정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윤재윤 춘천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간부들이 참석하였으며, 신규위원 5명과 재위촉된 위원 13명에게 위촉장 수여가 이루어 졌다.



'방통융합시대 바람직한 EBS 역할과 합리적 재원 구조' 토론회 참석

한진만 위원(강원중재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12월 17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통융합시대 바람직한 EBS 역할과 합리적 재원 구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 한 위원은 시청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EBS 시청자 시청행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참여 조례제정' 공청회 사회

강형기 위원(충북중재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은 12월 28일 옥천군이 개최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사회자로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군의원·외부 전문가·주민 등이 참석해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 및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 졌다.



충북변호사회장 취임

박충규 위원(충북중재부, 변호사)은 지난 17일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취임식을 갖고 충북변호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 위원은 취임식에서 “앞으로 2년간 화합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새해맞이 산행

서울제6중재부 전·현직 중재위원과 조사관은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으로 단합을 위한 새해맞이 산행을 했다.

2010년 조정신청 2,205건 접수처리

조정·중재신청 처리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모두 2,20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이는 전년(1,573건) 대비 40.2% 증가한 것이다. 조정신청건이 2천건을 넘은 것은 위원회 설립 이후 처음이며, 피해구제율은 79.8%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626건, 조정에갈음하는결정 147건(동의 105건, 이의 38건, 계속 4건), 조정불성립결정 148건, 기각 137건, 각하 1건, 취하 1,114건(피해구제 882건), 계류 32건이며,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가 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신문 567건, 신문 540건, 방송 189건, 뉴스통신 42건, 잡지 24건, 기타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76건의 중재결정과 1건의 기각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권별 중재신청건수는 정정청구가 35건, 반론청구 28건, 추후청구 12건, 손해청구 2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1~12월	정정	1,211	336	72	18(1)	3	80(4)	66	1	619(487)	16	80.0
	반론	171	50	10	1	—	12	31	—	64(38)	3	71.5
	추후	50	23	1	1	—	1	2	—	22(20)	—	91.7
	손배	773	217	22	18(1)	1	55(1)	38	—	409(337)	13	80.2
합계		2,205	626	105	38(2)	4	148(5)	137	1	1,114(882)	32	79.8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별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중재 화해결정	기각
1~12월	정정	35	34		1
	반론	28	28		
	추후	12	12		
	손배	2	2		
합계		77	76		1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총 11차례의 회의를 열어 자체 심의한 언론보도 중 총 284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관련보도 199건, 피의자 신원공개 49건, 범죄방법 상세묘사 등 기타 법익침해 18건, 사생활침해 10건, 마약·음향·음향 등 공개 4건, 성폭력 피해자 신원공개 및 특강법 피해자 신원공개 각 2건이며, 매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49건, 일간지 96건, 뉴스통신 20건, 주간지 14건, 월간지 5건으로 나타났다.

상담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2,723건을 상담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2,0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기관 안내가 260건, 기타가 255건, 재상담 예정 135건, 법적절차 안내 92건, 자체종결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을 살펴보면 일간신문 914건, 인터넷신문 855건, 인터넷뉴스서비스 752건, 방송 541건, 주간신문 403건, 뉴스통신 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황

언론중재위원회는 2010년 12월까지 모두 134차례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56건, 언론사 26건, 대학 16건, 지자체 15건, 인터넷 프로그램 8건, 공·사기업 4건, 기타 9건 등이다.

NEWS

위원회 소식

2010년 직원업무워크숍 개최



중재위원회는 12월 23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업무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10년 직원업무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개선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및 국가전자도서관 학술자료 열람서비스 오픈



중재위원회는 지난해 말 국회도서관 및 국립중앙도서관과 체결한 '학술정보 상호협력협정'에 따라 1월 3일부터 학술자료 열람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자들은 사무처 자료실에 비치된 검색전용 PC를 통해 각종 입법자료와 학술자료 원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자료실 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교육 실시



양재규 정책연구팀장(변호사)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검사와 사법연수생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초상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양 팀장은 작년 12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의 범위, 초상권의 법적 의의에 대해 강의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쌀 기부



중재위원회는 12월 30일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소득 서민을 돕기 위한 쌀을 전달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인사 (2011. 1. 1. 자)

〈전보〉 [심리본부] 조사팀장 류석창, 기사심의팀장 이미경 [연구본부] 정책연구팀장 양재규, 홍보팀장 강현석 [운영본부] 예산회계팀장 권오근, 총무팀장 정희성 [광주사무소] 소장 김윤정

언론중재 Eye-Net 서비스 시작

중재위원회는 지난 1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언론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중재 Eye-Net'을 오픈했다. '언론중재 Eye-Net'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정·중재를 신청하고 심리절차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신청인과 언론사는 조정·중재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위원회 QR코드 서비스 개시

위원회는 올 1월부터 소식지에 QR코드 서비스를 실시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QR코드를 찍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QR코드(Quick Response Code)란?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2차원 바코드로 전환해 간편하고 쉽게 코드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위원회 소개

상담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counsel@pac.or.kr
홈페이지 www.pac.or.kr
트위터 www.twitter.com/pac_news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청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실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